

## 부부갈등과 이혼상황에서의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Differences in Adolescent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by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of Parents\*

홍순혜(Soon-Hae Hong)<sup>1)</sup>

김은영(Eun-Young Kim)<sup>2)</sup>

### ABSTRACT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living in situations of high parental conflicts were compared with those in low parental conflicts, and with those in parental divorce. Ten high schools were chosen in Seoul and Kyunggi areas and all the students in three classes of each school replied to a questionnaire. Data consisted of the replies of 126 students living with parents in high marital conflict, 101 with parents in low marital conflict and 101 with a divorced par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 living in high parental conflict compared to those in low parental conflict, showed a lower level of adjustment in all of the psycho-social adjustment variables except social self-esteem.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in high parental conflict and those in parental divorce.

**Key Words** :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부모갈등(parental conflict); 부모이혼(parental divorce); 심리사회적 적응(psycho-social adjustment).

### I. 서론

현대사회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안락함과 휴식을 제공하는 가족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가족제도는 과거와 달리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핵가족 체제이기 때

문에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역할이 중요시되며 부부체계를 중심으로 부모체계, 형제체계로 확장되면서 발달해간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은 기본적으로 부부체계와 부모-자녀체계를 포함하며 자녀는 이 두 체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가족 내에서 경험

\*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2004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짐.

<sup>1)</sup>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전공 교수

<sup>2)</sup> 서울여자대학교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Soon-Hae Hong, Soon-Hae Hong, Department of Social Work,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139-774, Korea E-mail : shhong@swu.ac.kr

하는 모든 관계성과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부부갈등은 자녀들에게 매우 부정적 경험 중의 하나가 된다.

부부갈등이 심한 환경 하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불안, 우울,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문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성 문제 등 부적응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김희경, 2000; 노상렬, 2001; Amato and Keith, 1991; Buehler 등, 1998; Cherlin 등, 1991; Cummings and Davies, 1994; DeBellis, 1997; Elliot and Richards, 1991; Mathias 등, 1995; Zill 등, 1993).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Cummings 등, 1991) 적응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심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의 갈등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모델링하게 되고 반면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은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Belsky 등, 1991; Cummings and Davies, 1994; Fincham 등, 1994; Harrist and Ainslie, 1998; Kline 등, 1991)). 또한 갈등상황에의 지속적 노출은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며 정서적 반응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켜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한다(DeBellis, 1997; Cumming and Davis, 1994). 또한 부모갈등 속에서 자녀가 폭력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불안과 소극적 태도의 경향성이 증가한다(정인숙, 2003).

심한 부부갈등은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도 자녀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Belsky 등, 1991; Cummings and Davies, 1994; Fincham 등, 1994; Kline 등, 1991).

부부갈등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훈육이나 애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양육의 질이 저해되고 심한 부부갈등이 초래하는 우울이 부모의 가족기능 수행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부갈등이 심해져서 더 이상 부부가 같이 살 수 없을 때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된다. 통계청(1990-2003) 자료에 따르면, 조이혼율이 '90년에는 1.1이던 것이 '95년에는 1.5, 2003년에는 3.5까지 증가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월 기준으로 총 이혼 횟수는 약 262만 건, 총 혼인 횟수 대비 9.3%이며 전체 결혼한 부부 11쌍 중 약 한 쌍이 이혼하고 있다(중앙일보, 2004.4.20). 이런 이혼율은 부부갈등에 대한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비록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부부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가정의 자녀수도 급증하고 있다. 2002년도 한 해 동안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한 부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자녀가 1명인 가정이 30%, 2명이 35%, 3명이 5%였다. 이 수치를 적용해 볼 때 2002년도 한 해에 약 16만 명이 넘는 미성년 자녀들이 새로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결과가 된다(전수정, 2003).

전반적으로 국내외 문헌들은 이혼가정 자녀들이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여러 가지 적응이나 안녕의 측면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해 왔다(권영미, 1993; 김남숙, 1993; 이삼연, 2002; Amato, 1993; Amato and Keith, 1991; Demo and Acock, 1996; Emery and Forehand, 1996). Amato와 Keith(1991)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적 관련성을 비양육부모의 부재,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 이혼 전후의 가족갈등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92개의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부모 부재 관점과 경제적 결핍 관점은 일부의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지만 가족갈등 관점은 대부분의 연구들에 의해 일관성 있게 지지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족갈등 관점에 의하면 부모의 갈등은 부모의 헤어짐 그 자체보다 자녀들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혼 후 친부모들 간에 접촉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감소하면 이혼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녀의 적응은 향상된다고 보고 있다. 다른 여러 연구들(Buehler 등, 1998; Kelly, 2000; Kline 등, 1991)도 부모의 헤어짐 그 자체나 이혼 후의 부모갈등 보다는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부부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욱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Kelly(2000)는 이혼가정의 자녀와 부부갈등이 있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의 적응을 연구한 논문들을 검토하면서 이혼가정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부간 갈등이 심한 가정의 자녀들도 심리사회적 적응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Kelly는 이혼가정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적응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 자체가 아동의 부적응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견해는 우리에게 부모의 부부갈등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양친부모가정 아동들의 적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우리가 흔히 이혼가정 자녀들의 부적응을 증명하기 위

해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도 하겠다. 양친부모가정의 부부갈등은 저갈등에서부터 고갈등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가정의 자녀들은 부부갈등과 이로 인한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질적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친부모가정 자녀들의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양친부모가정 자녀들은 적응적이고 이혼가정 자녀들은 부적응적이라고 이분화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갈등 수준에 따라 매우 상이한 적응을 보이는 이질적 집단이며, 부모의 심한 부부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이혼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사실상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양친부모가정 자녀들과는 동일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은 대부분 부모의 부부갈등이라는 공통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경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적일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부모의 부부갈등 수준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있지만 부부갈등이 큰 가정 자녀들의 부적응이 어느 수준인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각한 가정의 자녀들을 부부갈등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과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서 비교하고, 다시 부부갈등이 심각한 가정 자녀들의 적응이 이혼가정 자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갈등 정도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비교는 부부갈등의 심각성에 따른 자녀 적응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갈등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과 이혼가정 자녀들과의 비교는 심리사회적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두 집단이 얼마나 동질적 혹은 이질적 집단인가를 밝혀주는 동시에 이를 통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두 집단에 주어져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 지역 중고등학교 10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한 학교에서 3학급씩 총 30학급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역에서 7개교, 경기지역에서 3개교가 포함되었으며, 중학교가 7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모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시켰으며, 고등학교에는 인문계 1개교, 실업계(공업고등학교, 산업고등학교) 2개교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설문지는 중학생 31명(1반)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거쳤으며 본 조사는 2003년 5월 한 달간 대학원생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의 협조 하에 실시하였다. 총 1,203명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가 수집된 1,203명의 학생들 중 양친부모 가정의 자녀는 전체의 83.5%인 1,004명, 이혼가정 자녀는 8.6%인 104명, 별거가정 자녀가 28명,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사별가정 자녀가 43명, 부모의 결혼상태를 모른다고 답한 학생이 6명이었다. 이 연구는 부부 간의 갈등과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이혼가정 자녀와 양친부모 자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가 이혼 후 재혼

한 가정은 이혼가정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이 연구에서의 이혼가정은 이혼한 한부모 가정을 의미한다. 조사 분석에 앞서 결측치가 많은 부실 자료를 제외시켰으며, 그 결과 이혼가정 자녀 101명과 양친부모가정 자녀 941명, 총 1,04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 도구

### 1) 심리사회적 적응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은 전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의 3가지 측면에서 측정되었다. 전반적 자아존중감은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 (1979)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0.80였다. 사회적 및 가정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67)와 Pope 등(1988)의 연구를 참조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 자아존중감은 '나는 좋은 아들(딸)이다',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실 만하다'와 같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및 가정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85와 .86이었다.

학업성취는 학생이 지각하는 자신의 학교성취 정도를 최하에서부터 최상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생의 내재화 행동으로는 우울·불안 행동을, 외현화 행동으로는 공격행동과 사회적

위축행동을 살펴보았으며 Achenbach의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4-18세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CBCL은 한국판 CBCL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한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문항들이다. 한미현과 유안진의 척도로부터 우울·불안행동 14문항, 공격행동 9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위축행동은 비만이나 과식과 같은 특정 신체특성이나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을 제외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우울·불안이 0.82, 공격성이 0.73, 사회적 위축이 0.72이었다.

## 2) 부부갈등

부모 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Grych와 Fincham(1990)이 제작하고 박수잔(1997)과 노상렬(2001)이 국내 연구에서 사용한 CPIC(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척도문항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CPIC는 총 9개 하위 척도에 속하는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자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심각성이므로 부부의 갈등 정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하위척도인 빈도, 강도, 해결정도, 인지된 위협정도에 해당하는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빈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강도에는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중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해결정도에는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지신다', 자녀가 인지하는 위협정도에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다가 혹시 이혼하지 않을까 걱정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하 18점에서부터 최고 54점까지의 점수가 가능하다. 18개 문항들의 총점이 부부갈등 정도를 반영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8개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s alpha 값은 .71이었다.

## 3. 조사분석방법

### 1)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와 저갈등 양친부모 자녀의 비교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갈등점수를 중심으로 고갈등 양친부모와 저갈등 양친부모로 이분하였다.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갈등정도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양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서만 측정되었는데, 이들 전체의 부모갈등점수는 평균이 31.31, 표준편차가 5.73이었다.

고갈등 부모집단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부모갈등점수가 평균에서부터 1SD(표준편차) 이상 더 높은 경우(38 이상인 경우)로, 저갈등 부모집단은 평균보다 1SD 이상 낮은 경우(25점 이하)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연속변수를 가지고 변수의 특성을 보다 극단적으로 반영하는 집단을 구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해당집단의 상위 25%나 하위 25%를 구분하거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평균값에 1SD를 더하거나 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이상균·박현선, 2000; Luthar, 1991; Stouthamer-Loeber 등, 2002). 해당 집단의 상위 및 하위 25%에 해당하는 두 집단을 선택하는 것보다 평균값±1SD 보다 크거나 작은 두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성격이 상이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다. 해당 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경우 평균

〈표 1〉 양친부모가정 자녀가 인식한 부모갈등에 따른 집단 구분

집 단 명	갈등점수 구간	n	%	갈등점수 평균	SD
전 체	19-53	874	100.0	31.31	5.73
저갈등 양친부모를 둔 자녀집단	25 이하	101	11.5	23.51	1.40
분석에서 제외된 집단	26-31	412	47.0	28.45	1.64
	32-37	235	24.0	34.05	1.60
고갈등 양친부모를 둔 자녀집단	38 이상	126	17.5	41.83	3.52

값±1SD보다 크거나 작을 확률은 각각 약 15%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갈등집단과 저갈등 집단의 의미 있는 구분을 위해 평균값±1SD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조작적 정의에 의해 나누어진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와 저갈등 양친부모 자녀 사이에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가 있는지를 t-test에 의해 분석하였다. 전체 양친부모 자녀 중 부모의 갈등이 낮은 저갈등 집단은 전체의 11.5%, 고갈등 집단은 17.5%를 차지하였다.

## 2)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와의 비교

<표 1>의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 126명과 이

혼가정 자녀 101명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비교가 t-test를 통해 이루어졌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 대상자 중 남학생이 전체의 51.8%, 여학생이 48.2%를 차지하였다. 양친부모가정과 이혼가정 자녀 중 남학생의 비율은 각각 52.2%, 48.5%로 양친부모가정의 자녀 중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높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조사대상자들 중 중학생 대 고등학생 비율은 약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분 류	양친부모가정 자녀		이혼가정 자녀		계	
		빈 도	%	빈 도	%	빈 도	%
성 별	남	491	52.2	49	48.5	540	51.8
	여	450	47.8	52	51.5	502	48.2
학 년	중1	247	26.2	24	23.8	271	26.0
	중2	157	16.7	26	25.7	183	17.6
	중3	260	27.6	18	17.8	278	26.7
	고1	81	8.6	9	8.9	90	8.6
	고2	132	14.0	14	13.9	146	14.0
	고3	64	6.8	10	9.9	74	7.1
	최하	18	1.9	6	6.4	24	2.3
경제수준	중하	148	15.9	44	46.9	192	18.8
	중	579	62.3	35	37.2	614	60.0
	중상	151	16.3	9	9.6	160	15.6
	최상	33	3.6	0	0	33	3.2

7 : 3이었다. 양친부모가정 자녀 중 중학생의 비율은 70.5%, 이혼가정 자녀들 중 중학생의 비율은 67.3%로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중산층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더 낮게 보고하고 있었다.

###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

<표 3>은 양친부모가정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를 자녀의 특성에 따라 비교한 t-test와 one-way ANOVA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부갈등은 성별 및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득수준이 ‘중’ 이상인 가정의 자녀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갈등점수 보다 ‘최하’나 ‘중하’의 낮은 소득수준 가정의 자녀들이 인식하는 부모갈등 점수가 더 높았다(<표 4> 참조).

<표 3> 양친부모가정 자녀가 인식한 부모갈등의 집단 간 비교

항 목 구분	n	평균	SD	t/F value	
성 별	남	453	31.19	5.77	-.679
	여	421	31.45	5.69	
학 년	중1	228	31.43	5.39	.953
	중2	141	30.82	5.44	
	중3	243	31.12	5.82	
	고1	74	30.85	5.07	
	고2	126	32.16	6.91	
	고3	62	31.60	5.32	
	최하	16	36.50	8.76	
소득수준	중하	141	33.72	6.48	12.870***
	중	542	30.84	5.31	
	중상	141	30.69	5.27	
	최상	30	28.87	5.30	

\*\*\*p<.001

<표 4> 소득수준별 부모갈등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소득수준	최하	중하	중	중상	최상
최 하			*	*	*
중 하			*	*	*
중	*	*			
중 상	*	*			
최 상	*	*			

### 3.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와 저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 사이의 심리사회적 적응 비교

<표 5>는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집단과 저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집단을 단순 비교하는 t-test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심리사회적 적응변수들, 즉 가정 자아존중감, 전반적 자아존중감, 불안·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에서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집단이 저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집단에 비해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들은 저갈등 양친부모 자녀들에 비해 가정 및 전반적 자아존중

<표 5>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와 저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적응변수	구 분	평균	SD	t-value
사회적 자아존중감	저갈등	30.96	6.28	-1.251
	고갈등	32.28	9.47	
가정 자아존중감	저갈등	30.02	6.10	3.943***
	고갈등	26.60	6.77	
전반적 자아존중감	저갈등	27.60	3.86	3.235***
	고갈등	25.67	4.82	
불안·우울	저갈등	21.94	4.43	-5.195***
	고갈등	25.39	5.50	
공격성	저갈등	12.67	2.46	-4.991***
	고갈등	14.56	3.17	
사회적 위축	저갈등	7.96	1.99	-4.918***
	고갈등	9.44	2.52	

\*\*\*p<.001

〈표 6〉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비교

적응변수	구분	평균	SD	t-value
사회적 자아존중감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	32.28	9.47	.215
	이혼가정 자녀	32.01	8.72	
가정 자아존중감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	26.60	6.77	-.485
	이혼가정 자녀	27.03	6.18	
전반적 자아존중감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	25.67	4.82	-.401
	이혼가정 자녀	25.91	3.92	
불안·우울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	25.39	5.50	1.816
	이혼가정 자녀	24.15	4.48	
공격성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	14.56	3.17	1.407
	이혼가정 자녀	13.98	2.71	
사회적 위축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	9.44	2.52	1.280
	이혼가정 자녀	9.01	2.29	

감이 낮으며 우울·불안 및 공격적 성향이 높고 사회적으로 더 위축되어 있었다.

#### 4.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비교

<표 6>은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집단과 이혼가정 자녀집단을 비교하는 t-test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심리사회적 적응변수들에서 양친부모가정 자녀집단과 이혼가정 자녀집단 간에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들과 저갈등 양친부모자녀 사이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전반적 자아존중감, 불안·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고

갈등 양친부모 자녀들과 이혼가정 자녀 사이에 이러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집단은 저갈등 양친부모 자녀집단에 비해 가정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불안·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부 갈등이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많은 연구들(김희경, 2000; 노상렬, 2001; Amato and Keith, 1991; Buehler 등, 1998; Cherlin 등, 1991; Cummings and Davies, 1994; DeBellis, 1997; Elliot and Richards, 1991; Mathias 등, 1995; Zill 등, 1993)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부모의 갈등이 심한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갈등이 적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심리사회적 적응변수



들에 대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들이 이혼가정 자녀들만큼이나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Kelly(2000)는 그의 연구에서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들이 이혼가정 자녀들만큼이나 많은 적응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혼가정 자녀들의 부적응이 부모 이혼 전의 부부갈등과 관련성이 많음도 보고되어 왔다(Buehler 등, 1998; Kelly, 2000; Kline 등, 1991).

그러나 고갈등 양친부모가정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들이 비슷한 적응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요인들이 이런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두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은 부모의 심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혼가정은 과거의 부모갈등 이외에도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스트레스를 현재에 경험하고 있다. 두 집단 간의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혼가정 자녀의 경우는 부모갈등으로 인한 영향은 줄어들고 이혼 후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이 증가하여 그런 적응수준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본 연구결과만을 가지고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각각 두 집단의 적응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 지는 알기 어려우나 어떤 이유에서이든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정도의 적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양친부모가정 자녀들이 인지하는 부모갈등 수준에 유의미하게 관련성을 갖는 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수준을 통제하지 않고 고갈등 가정과 저갈등 가정, 고갈등 가정과 이혼가정 자녀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은 이러한 한계점

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고갈등 양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저갈등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성장에 위협을 받고 있는 고갈등 양친부모 자녀들에게 치료적 또는 예방적 개입이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부부갈등이 심각한 양친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개입은 자녀들이 현재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이혼가정 자녀들은 부적응적이고 양친부모가정 자녀들은 모두 적응적이라는 이분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을 지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두 집단에 대한 이러한 일반화는 이혼가정 자녀들에게 낙인을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모갈등 밑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양친부모가정 자녀들을 배제시키게 된다.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충분한 관심과 개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남숙(1993).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경(2000). 아동의 우울감과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상렬(2001).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

- 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잔(1997).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4.
- 이상균 · 박현선(2000). 소년소녀가장의 성인역 아동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6, 143-164.
- 전수정(2003). 양육 및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숙(2003).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04. 4. 20.
- 최보가 · 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한미현 · 유안진(1995). 아동행동 평가척도(CBCL)의 타당화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Amato, P. R.(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ling, B.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 487-498.
- Buehler, C., Krishnakumar, A., & Stone, G. et al.(1998).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youth problem behaviors : A two-sample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119-132.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m Francisco : W. H. Freeman.
- Cherlin, A., Furstenberg, F., & Chase-Lansdale, L. et al.(1991). Longitudinal studies of divorce on children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Sciences*, 252, 1386-1389.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3), 462-470.
- Cummings, E. M., & Davies, P. T.(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ew York : Guilford.
- DeBellis, M.(199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cute stress disorder. In R. Ammerman & M. Hersen(Eds.), *Handbook of prevention and treat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 : Intervention in the real world context*. New York : Wiley.
- Demo, D. H., & Acock, A. C.(1996).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6, 457-488.
- Elliot, B. J., & Richards, M. P. M.(1991). Children and divorce : Educational performance and behavior before and after sepa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Family*, 5, 258-287.
- Emery, R. E., & Forehand, R.(1996).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mezy, & M. Rutter(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N.(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Harrist, A., & Ainsline, R.(1998). Paren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Issue*, 19, 140-163.
- Kelly, J. B.(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8), 963-973.
- Kline, M., Johnston, J. R., & Tchan, J.(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 A model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97-317.
- Luthar, S. S.(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Mathias, J. L., Mertin, P., & Murray, A.(1995). The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children from backgrounds of domestic violence. *Australian Psychologist*, 30, 47-56.
- Pope, A. W., McChale, S. M., & Craighead, W. E. (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 Pergamon Press.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Stouthamer-Loeber, M., Loeber, R., Wei, E., Farrington, D. P., & Wikstrom, P. O.(2002). Risk and promotive effects in the explanation of persistent serious delinquency in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111-123.
- Zill, N., Morrison, D., & Coiro, M.(1993). Long 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djustment, and achievemen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91-103.

---

2004년 12월 31일 투고 : 2005년 2월 19일 채택